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 연구

오 원 석*

대구인지초등학교 교사

최 성 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송 혜 경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대학원생

신 지 현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대학원생

《요 약》

본 연구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사회적 거리감, 개인적 권한 및 차별적 신념에 대한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련 변인간의 관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둘째,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는 여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1학년이 4학년보다 긍정적이고, 특수교육관련학과에 재학생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은 학년, 만남정도, 봉사활동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 학년, 전공, 만남정도, 활동 경험에 의해, 개인적 권리는 성별, 만남정도, 봉사활동에 의해, 그리고 차별적 신념은 성별, 학년, 만남, 봉사활동 변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간 관계 모형은 개인적 배경 변인 중 간접 경험의 정도와 봉사활동 정도에 의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과 차별적 신념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도 매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량은 $R^2=.574$ 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지적 장애인, 사회적 통합, 대학생의 태도

* 제1저자(k963041@hanmail.net)

** 교신저자(skchoi@daeg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태도란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개인들이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기제로서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개인은 태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태도는 모든 사람들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이거나 참조적인 심리학적 과정이고,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유발되는 표현 또는 행동양식이다(Antonak & Linveh, 2000). 또 Tregastis(2000)도 태도는 오래 시간을 통한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사람들의 관심에 무게를 둔 학습된 특성 또는 내적 심리적 기제로 태도는 경험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을 안내하는 지침을 제공한다(Berry & Dalal, 1996).

Makas, Finnerty-Fried, Sugafoos, 그리고 Reiss(1988)는 비장애인에게 있어 긍정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좋은” 그리고 “이로운” 것으로 개념화되는 반면에, 장애인에게 있어 긍정적 태도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장애의 범주를 없애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태도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시도에서 실패에 대한 이유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며(Fisher, Pumpain, & Sax, 1998),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정상인으로부터 유지되는 부정적 태도와 고정 관념적 이미지는 사회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참여에 대한 가장 큰 장벽으로 제시되었다(Donaldson et al., 1994).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장애인을 위한 고용 기회 또는 의료적 치료에 대한 가족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Zhang & Bennet, 2001).

Groce와 Zola(1993)는 장애인에 대한 신념체계에서 변화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논 의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보다 복잡하게 변하고 있으며, 문화 내에서 그리고 문화 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비장애인 들의 다양한 관련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Groce(1997)는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10명 중 1명은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졌고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 등록수를 보면 2007년 3월 현재 2,010,595명이며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지체장애로서 1,070,450명이며, 다음은 시각장애로 209,968, 뇌병변 장애 200,062명, 청각장애가 189,348명, 지적 장애는 137,102명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우리들의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및 교육적 통합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및 태도의 연구는 대부분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오원석, 서영란, 2006; 오원석, 남경숙, 허명진, 2006; 오원석, 최성규, 이한선, 2007 등)가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장애영역에 대한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연구는 박은경(2005)이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Siller의 장애태도요인분석척도(Disability Factor Scale: DFS)를 이종남(1994)이 번안하여 활용한 도구로 연구하였으며, 정선영과 공마리아(2004)도 Siller의 장애태도요인분석척도를 활용하여 통합교육 환경 하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 대학생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김진영과 남진열(2005)는 자작설문지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영철과 이유훈(2000)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태도를 ‘장애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德田, 1991)를 번안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 신뢰롭고 타당성있는 도구의 활용이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는 것은 Likert(1932)로부터 개발된 총합평정방법(summated-rating method)이다. 태도 대상을 특징화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진술문의 집합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반응의 연속선상에서 선택을 함으로써 각 진술문에 대한 승인을 표시하도록 반응자에게 요구하는 표준적 질문지로 문자화되어 정리되어 있다. 숫자의 가중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태도 항목에 대한 가장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반응범주를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각 반응의 범주에 따라 할당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를 위해 몇몇 연구 도구들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통계적 검정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Triandis(1971)에 따르면, 사람들이 문헌을 읽을 때 연구자가 ‘리커트 형식 항목’ 또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고 하는 것이 연구자가 반드시 문항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간편 방법(short-cuts)을 활용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연구를 출판하여 왔다. 따라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지 못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시된 결론들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국내에서 연구된 이영철, 이유훈(2000)의 연구에서도 ‘장애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德田, 1991)를 번안 활용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번안한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선영, 공마리아(2004)의 연구에서도 Siller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s)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활용하

였으나, 문항 구성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뢰도 계수만 제시하였으며, 한영숙(2004)에 따르면 Siller의 도구는 1967년에 제작된 도구로서 현실적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김진영과 남진열(2005)도 자작 설문지의 신뢰도만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문항의 안면 타당도에 있어서는 선행 개발자의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문항의 내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태도 측정 도구로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연구 도구의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최근 연구 결과들은 지적 장애인들의 독립성과 통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행위를 지지하였으며, 대부분의 태도와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은, 2004; Antonak & Livneh, 1991; Gottlieb, Corman, & Curci, 1984; Harth, 1977).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태도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장애에 관한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오원석, 최성규, 이한선, 2007; 김진영, 남진열, 2005; 박은경, 2005; Hornby, 1992; Lewis & Lewis, 1987).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초기 연구들에 있어 어린이들의 태도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의 접촉이 있을 때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 왔다. 많은 연구들은 경도 지적 장애아동과 통합된 아동의 접촉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모든 연구들은 두 집단 사이에 통합뿐만 아니라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였다(Acton & Zarbatany, 1988).

Finch(1998)는 어린이들이 같은 연령의 장애아동과 접촉에서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합 여름 캠프에 입학한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접촉을 많이 한 어린이들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 있어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 태도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조적이고 협력적이라면 접촉은 장애아동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고 결론지었다(Finch, 1998). 이러한 결과는 Brown et al(1999)와 Sherif et al(1961)의 연구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상호 의존, 협동, 공동의 목표라는 조건하에서 접촉을 권장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대인 지각이나 태도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된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장애인과의 접촉 빈도는 비장애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접촉가설은 국내에서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을 연구한 오원석, 최성규, 이한선(2007)의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비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는 장애아동과 접촉이 많은 아동이 긍정적이며, 장애아동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장애아동과의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Kowalski와 Rizzo(1996)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장애학생과 접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학문적 준비의 향상에 따라 태도가 변한다고 주장하면서 보다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나이 많은 동료들보다 장애인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Siperstein 등(2007)은 책이나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오원석 등(2007)의 연구에서도 간접 경험의 정도는 비장애 아동의 통합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이영철과 이유훈(2000)의 연구 결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식 태도가 호의적이고, 학년에 있어 1, 2, 3학년이 4학년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장애아동의 지도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적 장애 장애인과의 접촉 및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 태도의 형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 태도는 구조화된 환경 하에서의 접촉의 증가 또는 교육적 활동을 통해 지적 장애인의 통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ntonak와 Harth(1994)가 개발한 MRAI(Mental Retardation Attitudes Inventory)를 활용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학생들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인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변인들 예를 들면, 지적 장애인과 활동경험, 장애인에 대한 간접 경험 정도,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정도에 따라 대학생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어떠한 지 알아본다.
2.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대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3.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관련 변인간의 관계 모형을 개발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참여 학생은 대구광역시 소재 D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생이며, 특수교육학과, 사범계열 학과, 비 사범 계열 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D대학의 경우 장애학생들의 입학과 학업에 대한 지원적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접촉 및 만남의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활동에 있어서도 공동적 참여가 많아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기에 보다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별 배경변수로는 성별, 학년, 전공 그리고 장애 친척 유무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Finch(1998) 그리고 Brown et al(1999) 등의 연구 결과와 Antonak와 Harth(1994) 그리고 Horner-Johnson et al(2002)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과의 협력적, 구조적 접촉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을 근거로 하여 기타 변수들로는 장애인을 봉사활동 경험 유무, 지적 장애인과의 활동 경험, 그리고 장애에 대한 간접 경험의 정도,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로 하였다. 간접 경험의 정도는 최근 일 년 동안 장애인에 관련된 책이나 글을 읽은 경험과 영화 또는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으로 구분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장애인과 만남 정도는 수업활동, 수업 외 학교 활동 예를 들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동아리 활동 등에서 만남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학교 행사활동으로는 각종 학교 축제, 체육대회, MT 등에서 장애학생과의 활동 정도를 의미하며,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장애인을 만남 정도도 따로 분리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대상자 현황

변인	하위 구분	연구 대상자의 배경 변인											
		성별		학년				전공			장애친척유무		계
		남	여	1	2	3	4	특수교육	교육계열	비교육계열	유	무	
봉사활동경험	5-6회	56	39	12	38	34	11	7	60	28	27	68	95
	3-4회	24	36	9	24	22	5	22	28	10	9	51	60
	1-2회	5	12	2	10	5	0	13	2	2	8	9	17
	없음	12	69	22	46	13	0	73	2	6	29	52	81
지적장애인과 활동경험	5-6회	54	57	19	45	37	10	37	58	16	21	90	111
	3-4회	23	41	14	32	16	2	20	26	18	19	45	64
	1-2회	6	10	0	6	8	2	7	5	4	9	7	16
	없음	14	48	12	35	13	2	51	3	8	24	38	62

변인	하위 구분	연구 대상자의 배경 변인												
		성별		학년				전공			장애친척유무		계	
		남	여	1	2	3	4	특수교육	교육계열	비교육계열	유	무		
간접 경험 정도	책(글)을 통한 경험	5-6회	42	25	6	38	17	6	1	48	18	16	51	67
		3-4회	29	68	20	49	22	6	42	33	22	30	67	97
		1-2회	9	28	6	16	15	0	34	3	0	11	26	37
		없음	17	35	13	15	20	4	38	8	6	16	36	52
	영화(드라마)를 본 경험	5-6회	29	18	4	26	13	4	5	30	12	14	33	47
		3-4회	52	98	25	73	42	10	71	49	30	43	107	150
		1-2회	6	34	14	15	11	0	29	9	2	10	30	40
	없음	10	6	2	4	8	2	10	4	2	6	10	16	
장애인과 만남 정도	수업 시간 만남	매일	53	49	15	53	28	6	16	66	20	29	73	102
		자주(주당2-5회)	6	27	9	14	10	0	15	8	12	5	28	33
		가끔(주당 1번)	12	7	4	4	10	1	7	6	6	4	15	19
		좀처럼(한달1-3번)	14	31	7	28	7	3	33	10	2	16	29	45
		거의(일년1-10번)	8	34	8	16	12	6	32	2	8	14	28	42
		전혀	4	8	2	3	7	0	12	0	0	5	7	12
	학교 활동 만남	매일	56	71	24	61	32	10	25	70	32	29	98	127
		자주(주당2-5회)	12	20	7	12	13	0	14	14	4	10	22	32
		가끔(주당 1번)	8	24	7	16	9	0	25	5	2	14	18	32
		좀처럼(한달1-3번)	9	21	5	15	9	1	25	1	4	11	19	30
거의(일년1-10번)		10	11	1	7	8	5	17	2	2	5	16	21	
	전혀	2	9	1	7	3	0	9	0	2	4	7	11	
학교 행사 활동 만남	매일	61	67	28	59	33	8	26	80	22	27	101	128	
	자주(주당2-5회)	10	48	8	31	16	3	38	8	12	22	36	58	
	가끔(주당 1번)	12	23	6	14	15	0	23	4	8	17	18	35	
	좀처럼(한달1-3번)	8	7	2	9	3	1	15	0	0	3	12	15	
	거의(일년1-10번)	4	6	1	2	3	4	6	0	4	2	8	10	
	전혀	2	5	0	3	4	0	7	0	0	2	5	7	
학교 이외 장소 만남	매일	41	38	9	39	23	8	11	50	18	15	64	79	
	자주(주당2-5회)	25	47	16	33	20	3	31	33	8	18	54	72	
	가끔(주당 1번)	15	26	11	13	15	2	27	4	10	15	26	41	
	좀처럼(한달1-3번)	7	32	6	23	9	1	30	3	6	15	24	39	
	거의(일년1-10번)	6	10	3	9	2	2	12	0	4	7	9	16	
	전혀	3	3	0	1	5	0	4	2	0	3	3	6	
계		97	156	45	118	74	16	115	92	46	73	180	253	

2. 연구 도구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연구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Antonak와 Harth(1994)가 개발한 MRAI(Mental Retardation Attitudes Inventory)를 Horner-Johnson 등(2002)이 활용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Antonak와 Harth(1994)가 1974년 이후 공립학교에 장애아동의 통합 그리고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을 제한하는 연방법의 개정예 따라 재구성하게 되었다. 재구성한 도구는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요인으로 통합과 분리(integration-

segregation),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개인적 권리(private rights), 차별적 신념(subtle derogatory beliefs)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Antonak와 Harth(1994)의 연구도구는 Horner-Johnson 등(2002)이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문화 간 차이에 따른 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Horner-Johnson 등은 Antonak와 Harth(1994)의 도구 중 한 개 항목을 삭제하고 전체 28개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하위 요인으로 통합 대 분리(Integration-Segregation)요인은 7개 문항으로 지역사회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8개 항목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교제 또는 생활에 대한 자발성 또는 거부감을 포함한다. 개인적 권리(Private Rights)는 7개 항목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권리에 관련되어 있으며, 차별적 신념(Subtle Derogatory Beliefs)은 7개 항목으로 지적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차별적 견해를 포함한다. Horner-Johnson 등(2002)의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전체 28개 문항을 검사한 결과 22개 문항만이 요인 부하량이 .3 이상을 나타냈고, 나머지 8개 문항은 .3이하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Horner-Johnson 등(2002)은 다른 문화 속에서 개발된 연구 도구를 적용할 경우에는 내용 구성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분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연구 도구의 구성 및 내용

요인	측정 내용	문항수	내적 신뢰도	채점 방법
사회적 통합 (통합 대 분리)	지역사회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신념	7	.8334	6점 측도 최고점 42점 최하점 7점
사회적 거리감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교제 또는 생활에 대한 자발성 또는 거부감	8	.8979	6점 측도 최고점 48점 최하점 8점
개인적 권리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권리	5	.7266	6점 측도 최고점 30점 최하점 5점
차별적 신념	지적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차별적 견해	5	.6688	6점 측도 최고점 30점 최하점 5점
계		25	.923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국내에 적용하여 보고,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대학생들의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수업 담당 교수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시하고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는 A4사이즈의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응답은 지필 형식을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10분내외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으며, 응답자들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을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결측값이 있는 경우 반응자의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김계수(2007)에 따르면 결측값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으로 평균 교체, 특정값 교체, 회귀분석에 의한 교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변량 통계분석을 위해서 무응답치를 통합하는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집단으로 분류된 무응답을 포함한 데이터를 직접 통계분석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SPSS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우도추정법의 예로는 EM(expectation maximization)방법이 있으며, E단계는 무응답치에 대한 최적의 추정치를 찾고 M단계는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모수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김계수, 2007, pp. 142-143)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을 EM방법에 따라 보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검사 도구의 개발과정에서는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선행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요인 구조에서 벗어나는 문항들, 예를 들면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요인 구조에 따른 각 요인별 신뢰도와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 목적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T-검정, F-검정을 활용하였으며,

셋째,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관련 변인간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목적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연구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의 타당도는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국내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타당도는 문항 구성의 내적 일관성의 개념으로 각 요인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인 부하량과 비교하였다. 요인분석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분하며, 탐색적 요인분석은 발견되지 않은 구성개념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통해 탐색하는 방법이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확정된 이론으로부터 현실의 데이터가 이론적 구성개념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양병화, 2006). Antonak와 Harth(1994)는 23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점 척도(매우 긍정에서 매우 부정까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406)=748.59$, $p<.001$ 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 자료로서 적절성을 제시하였으며, 주성분 분석법을 활용하여 가설로 제시된 4개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사각회전 방법인 Oblique회전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은 .345를 기준으로 초과되는 요인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요인으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요인이며, 전체 변량의 28.14%를 설명하고 있다. 이 요인에는 사회적 거리 항목 8개 중 7개가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두 개 항목은 통합 대 분리 요인에서 1개 항목, 차별적 신념항목에서 1개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통합 대 분리 요인으로 전체 변량의 14.32%를 설명하고 있으며, 전체 7개 항목 중 통합대 분리에서 5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개인적 권리 항목에서 2개 그리고 차별적 신념 항목에서 1개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부하되었다. 4번째 요인은 변량의 7.54%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적 신념 항목 7개 중 5개 항목이 높게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Horner-Johnson 등(2002)은 일본 대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매우 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 부정)를 구성하여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선행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Horner-Johnson 등(2002)의 경우도 MRAI(Mental Retardation Attitude Inventory)가 일본 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분석 결과 아이젠 값(eigenvalues)이 1.00이상인 요인이 7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 요인은 8.24의 아이젠 값을 보였고, 전체 변량의 26.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 요인은 2.22의 아이젠 값을 보였고, 전체 변량의 7.2%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나머지 요인들도 두 번째 요인과 비슷한 정도의 설명 변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연구 도구의 타당성 분석 결과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태도	Antonak & Harsh(1994)		Homer-Johnson(2002)		본 연구		
	Mean	SD	Factor Loading	Factor Loading	Mean	SD	Factor Loading
1 일반 학교에의 통합	3.25	.70	.65	.61	4.70	1.32	.83
2 이웃에서 생활할 권리	3.27	.62	.75	.63	4.88	1.17	.63
3 방과 후 활동에서의 통합	3.13	.74	.65	.39	4.09	1.43	.55
4 유치원 과정에서의 통합	3.25	.64	.53	.70	4.77	1.26	.76
5 작업 공간에서의 통합	3.41	.56	.48(사회)	.60	4.39	1.16	.70
6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통합	3.11	.65	.40(개인)	.57	3.87	1.33	.69
7 학교의 정규 학급에 통합	2.83	.74	.42	.61	4.07	1.25	.78
8 지적 장애 아동의 생일잔치에 초대 승낙	3.72	.47	.38	.56	5.29	.96	.83
9 지적 장애아동과 친구관계에 대한 찬성	3.34	.56	.62	.71	5.05	1.06	.81
10 영화를 보거나 놀이 활동에서의 통합	3.41	.57	.50	.67	5.21	1.00	.61
11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모임에 초대	3.19	.59		.77	4.82	1.23	.80
12 수영하는 같은 풀에서 지적장애인의 수영	3.62	.49	.46	.67	5.11	1.17	.78
13 동네 이웃들에게 지적장애인의 소개	3.40	.49	.61	.65	4.98	1.14	.86
14 지적장애인의 이·미용실 이용	2.96	.68	.58	.57	4.21	1.34	.69
15 같은 아파트에서 지적 장애인의 생활	3.43	.54	.66	.71	4.86	1.29	.73
16 지적 장애가 없는 사람만을 하숙생으로 받아들임	3.10	.73	.54	.09	4.33	1.49	.56
17 사립보육학교장의 지적 장애아동의 입학 허용	2.82	.80	.40	.60	4.27	1.45	.67
18 부동산 중개인의 지적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집의 소개	3.47	.66	.52(통합)	.29	4.47	1.46	.71
19 지적 장애인의 야영 또는 놀이공원 이용할 권리	3.43	.71	.52	.27	4.80	1.24	.71
20 지적 장애인의 이·미용실 이용 권리	3.37	.65	.41(통합)	.75	5.28	1.07	.79
21 주간 보호 센터에서의 지적 장애아동 통합	2.52	.76	.63	.20	3.96	1.53	.28*
22 지적 장애인의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준비	3.09	.55	.51	.64	4.41	1.24	.60
23 지적 장애인의 공립학교 통합의 효과	3.46	.59	.40(통합)	.62	3.50	1.37	.68
24 지적장애인과 일반인의 공동체 생활의 실현	3.03	.68	.45	.48	2.84	1.16	.65
25 지적 장애아동의 학급 행동	3.43	.56	.41(사회)	.46	4.20	1.14	.71
26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3.17	.66	.43	.04	4.66	1.13	.24*
27 사회적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의 행동	2.49	.75	.59	.49	3.45	1.17	.59
28 지적 장애의 사회적 적응	3.22	.54	.40	.15	3.50	1.41	.09*

()는 다른 요인에 관계된 요인 부하량임. * 문항은 삭제 대상임.

그러나 4가지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전체 항목 28개 중 22개 항목이 .30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전체 28개 항목 중 .30 이하의 부하량을 나타낸 문항은 3개 문항이며,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서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부분들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6점 척도(매우 긍정에서 매우 부정까지 6단계)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요인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김계수(2007)는 표본의 크기가 250명인 경우 요인 부하량이 .35이상인 경우 유의한 변수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에 제시되고 있는 요인 부하량이 대부분 수용되고 있으나 3개 항목에 대하여서는 요인 부하량이 0.3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차후 분석에서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MRAI(Mental Retardation Attitude Inventory)의 신뢰도는 Antonak와 Harsh(1994)는 Cronbach's coefficient alpha값이 전체 .91이고, 통합 대 분리는 .81, 사회적 거리감은 .82, 개인적 권리는 .76 그리고 차별적 신념은 .73으로 제시하였으며, Horner-Johnson 등(2002)은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Cronbach's alpha값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검사 도구의 신뢰도

통합 대 분리	사회적 거리	개인적 권리	차별적 신념	전체
7 문항 .8334	8 문항 .8979	5 문항 .7266	5 문항 .6688	25 문항 .9237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25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237이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66에서 .89에 걸쳐 있다. 김계수(2007)에 따르면 문항 전체 수준인 경우 알파계수가 0.5이상, 개별 문항 수준인 경우 0.9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활용한 MRAI(Mental Retardation Attitude Inventory)는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진 도구로서 Antonak와 Harsh(1994)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것과 Horner-Johnson et al(2002)가 제시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부 문항의 경우 요인 부하량과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로 분석되어 지적 장애 및 통합 교육 등 다양한 장애 및 장애관련 교육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번안 또는 개발 적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분석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대학생들의 배경 변인 및 장애인과의 활동 경험, 장애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정도, 간접 경험의 정도 그리고 접촉의 빈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1)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황 즉, 학교, 직장 등의 상황에서 지적 장애인의 통합과 분리 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 -3에 제시하였다.

<표 III-3>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분석

구분	변인	항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유의확률	사후분석(Scheffe) 유의수준 .05에 대한	
								1	2
대학 생 관 련 변 인	성별	남	97	29.45	5.80	7.464	.007		
		여	156	31.66	6.54				
	학년	1	45	33.37	6.23	3.247	.023	33.37	
		2	118	30.55	5.66			30.55	30.55
		3	74	29.85	7.12				29.85
		4	16	30.00	6.41				30.00
	전공	특수교육계열	115	33.51	4.71	44.811	.000		
		기타 계열	138	28.56	6.66				
	장애 친 척 유 무	유	73	31.5753	6.61	1.464	.227		
		무	180	30.5099	6.23				
	계		253	30.8173	6.35				

지적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0.81, 표준편차 6.35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평균 33.37, 표준편차 6.23)를 보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철과 이유훈(200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나 박은경(2005)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타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영철과 이유훈(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장애친척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변인에 더하여 책이나 영화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의 정도, 장애인과 수

업 또는 학교 및 학교 외에서의 만남의 정도 그리고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횟수, 지적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가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제거법은 후진 제거법을 활용하였으며, 제거 기준은 F 값을 사용하여 진입은 3.84수준으로, 제거는 2.71수준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거된 변수는 성별, 장애친척, 전공, 간접 경험, 활동 경험이며, 설명변수로 남은 것은 학년, 만남정도, 봉사활동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표 III-4에 제시하였다.

<표 III-4>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분석

구분	모델			VIP
	B	β	t	
(상수)	23.647		28.807***	
배경 학년	2.656	.160	2.906**	1.044
변인 만남정도	.385	.305	4.896***	1.333
봉사활동	1.315	.264	4.184***	1.363
R		.524		
Adj-R ²		.266		
F		31.491***		
Durbin-Watson		1.437		

* p<.1 **p<.01 ***p<.001

주) 1. Dummy Variable을 활용함.(a:남성=0, 여성=1, b:학년 1학년=1, 그 외=0, c:전공 특수교육=1, 기타=0, d:장애친척 유=1, 무=0)

2. 간접경험빈도는 책을 통한 경험과 영화를 통한 경험의 합을 의미하고, 만남정도는 수업시간, 학교활동, 학교 외 활동에서 만남 정도의 합을 의미함.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로는 학년, 장애인과 만남정도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에 대한 설명량은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과 만남이 많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이 많을수록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이영철과 이유훈(200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대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교제 또는 활동에 대한 자발성이나 거부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에 제시하였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평균 39.56 표준편차 7.10으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 장애인과의 교제나 활동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 대상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환경이 장애인을 쉽게 접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으로 접촉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지지된다(오원석, 최성규, 이한선, 2007; 박은경, 2005; Finch, 1998; Brown et al, 1999).

<표 III-5>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구분	변인	항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유의확률	사후분석(Scheffe) 유의수준 .05에 대한	
								1	2
대학생 관련 변인	성별	남	97	37.08	7.49	20.738	.000		
		여	156	41.10	6.39				
	학년	1	45	43.20	4.61	6.225	.000	43.20	
		2	118	39.54	6.49			39.54	
		3	74	37.67	8.17			37.67	
		4	16	38.25	8.43			38.25	
	전공	특수교육계열	115	42.64	4.81	46.827	.000		
		기타 계열	138	37.00	7.67				
	장애친척 유무	유	73	40.00	6.91	.384	.536		
		무	180	39.38	7.18				
			253	39.56	7.10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에 있어 여학생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학년에 있어서는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특수교육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Horner-Johnson et al(2002)이 제시한 장애친척이 있는 집단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결과와는 달리 장애친척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6> 지적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분석

구분	모델			VIF	
	B	β	t		
(상수)	32.534		32.787 ***		
배경	성별	1.501	.103	1.724*	1.208
	학년	3.940	.213	3.804 ***	1.058
변인	전공	2.757	.194	2.714**	1.725
	만남정도	.211	.149	2.030*	1.835
	활동경험	1.023	.175	2.726 ***	1.394
R				.520	
Adj-R ²				.256	
F				18.335***	
Durbin-Watson				1.273	

* p<.1 **p<.01 ***p<.001

주) 1. Dummy Variable을 활용함.(a:남성=0, 여성=1, b:학년 1학년=1, 그 외=0, c:전공 특수교육=1, 기타=0, d:장애 친척 유=1, 무=0)

2. 간접경험빈도는 책을 통한 경험과 영화를 통한 경험의 합을 의미하고, 만남정도는 수업시간, 학교활동, 학교 외 활동에서 만남 정도의 합을 의미함.

이러한 배경변인에 더하여 간접 경험의 정도, 장애인과 만남의 정도 그리고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횟수, 지적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제거는 후진 제거법을 활용하였으며, 제거 기준은 F 값을 사용하여 진입은 3.84수준으로, 제거는 2.71수준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거된 변수는 장애친척, 봉사활동, 간접 경험 정도이며, 설명변수로 남은 것은 성별, 학년, 전공, 만남정도, 지적 장애인과의 활동 경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표 III-6에 제시하였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로는 성별, 학년, 전공, 만남정도, 활동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면서 저학년이고, 특수교육관련 학과 재학생으로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와 지적 장애인과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원석, 최성규, 이한선, 2007; 박은경, 2005; Horner-Johnson et al, 2002; Hernandez et al, 2000; Kregel & Tomiyasu, 1994; Levy et al, 1992).

3)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지적 장애인의 수용에 대한 개인적 권리에 대한 태도 분석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수용 또는 배제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권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7에 제시하였다.

<표 III-7> 지적 장애인의 수용에 대한 개인적 권리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분석

구분	변인	항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유의확률
대학생 관련 변인	성별	남	97	21.62	4.78	18.118	.000
		여	156	24.12	4.38		
	학년	1	45	24.40	4.37	1.478	.221
		2	118	23.07	4.28		
		3	74	22.55	5.44		
		4	16	23.18	4.54		
	전공	특수교육계열	115	24.84	3.60	30.258	.000
		기타 계열	138	21.76	5.04		
	장애친척 유무	유	73	23.41	4.78	.282	.596
		무	180	23.06	4.66		
			253	23.16	4.69		

지적 장애인의 수용과 배제에 대한 개인들의 권리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3.16, 표준편차 4.69로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보다 수용적이었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지식의 양이 많을수록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이영철과 이유훈(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장애친척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변인에 더하여 간접 경험의 정도, 장애인과 만남의 정도 그리고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횟수, 지적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가 지적 장애인의 수용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제거법은 후진 제거법을 활용하였으며, 제거 기준은 F 값을 사용하여 진입은 3.84수준으로, 제거는 2.71수준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거된 변수는 학년, 전공, 장애친척, 간접경험, 활동 경험이며, 설명변수로 남은 것은 성별, 만남정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표 III-8에 제시하였다.

<표 III-8> 지적 장애인의 수용에 대한 개인적 권리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분석

구분	모델			VIF
	B	β	t	
	(상수)	18.486	28.173 ***	
배경	성별	1.468	.152	2.479*
변인	만남정도	.241	.258	3.964 ***
	봉사활동	.646	.175	2.523*
R		.443		
Adj-R ²		.187		
F		20.304***		
Durbin-Watson		1.320		

* p<.1 **p<.01 ***p<.001

주) 1. Dummy Variable을 활용함.(a:남성=0, 여성=1, b:학년 1학년=1, 그 외=0, c:전공 특수교육=1, 기타=0, d:장애 친척 유=1, 무=0)

2. 간접경험빈도는 책을 통한 경험과 영화를 통한 경험의 합을 의미하고, 만남정도는 수업시간, 학교활동, 학교 외 활동에서 만남 정도의 합을 의미함.

지적 장애인의 수용에 대한 개인적 권리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로는 성별, 만남정도, 봉사활동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이면서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와 봉사활동 정도가 많을수록 지적 장애인의 수용에 대한 개인적 권리에 대해 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신념에 대한 태도 분석

대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서 지적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차별적이라는 견해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9에 제시하였다.

<표 III-9> 지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신념 분석

구분	변인	항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유의확률
대학생 관련 변인	성별	남	97	18.72	3.86	.870	.352
		여	156	18.23	4.11		
	학년	1	45	19.26	5.04	2.175	.091
		2	118	18.43	3.08		
		3	74	18.34	4.53		
		4	16	16.31	3.92		
	전공	특수교육계열	115	19.14	3.62	6.893	.009
		기타 계열	138	17.82	4.23		
	장애친척 유무	유	73	18.76	4.36	.741	.390
		무	180	18.28	3.87		
			253	18.42	4.01		

지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신념은 평균 18.42, 표준편차 4.01로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적 장애인의 통합, 사회적 거리감, 개인적 권리에 비해 차별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사회적 거리감, 개인적 권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적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년이나 장애친척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특수교육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변인에 더하여 간접 경험의 정도, 장애인과 만남의 정도 그리고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횟수, 지적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신념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제거법은 후진 제거법을 활용하였으며, 제거 기준은 F 값을 사용하여 진입은 3.84수준으로, 제거는 2.71수준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거된 변수는 장애친척, 간접경험, 전공, 활동 경험이며, 설명변수로 남은 것은 성별, 학년, 만남정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표 III-10에 제시하였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차별적 신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로는 성별, 학년, 만남정도, 봉사활동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이면서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와 봉사활동 정도가 많을수록 지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신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지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신념 분석

구분	모델			VIF	
	B	β	t		
(상수)	16.253		27.469 ***		
배경	성별	-1.528	-.185	-2.831*	1.204
	학년	1.259	.120	1.942*	1.076
변인	만남정도	.169	.211	3.070**	1.333
	봉사활동	.556	.176	2.399*	1.517
R		.344			
Adj-R ²		.104			
F		8.305***			
Durbin-Watson		1.182			

* p<.1 **p<.01 ***p<.001

주) 1. Dummy Variable을 활용함.(a:남성=0, 여성=1, b:학년 1학년=1, 그 외=0, c:전공 특수교육=1, 기타=0, d:장애 친척 유=1, 무=0)

2. 간접경험빈도는 책을 통한 경험과 영화를 통한 경험의 합을 의미하고, 만남정도는 수업시간, 학교활동, 학교 외 활동에서 만남 정도의 합을 의미함.

3.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간 관계 모형 개발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전공, 장애친척 유무 등의 배경 변인과 장애인시설의 봉사활동 정도, 지적 장애인과의 활동 경험, 책이나 영화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의 정도, 그리고 학교 및 학교 외에서 장애인과의 만남 정도 등 장애인 관련 변인 그리고 본 연구 도구의 하위 요인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개인적 권리, 차별적 신념 등의 관계 모형을 살펴보았다.

<표 III-11>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 모형

구분	모델			VIF	
	B	β	t		
(상수)	2.229		1.312		
관련 변인	간접 경험	.351	.092	1.807*	1.532
	만남 정도	.112	.089	1.682*	1.653
	봉사 활동	.437	.087	1.705*	1.555
	사회적 거리감	.419	.468	9.464***	1.445
	차별적 신념	.457	.289	6.308***	1.239
R		.763			
Adj-R ²		.574			
F		68.836***			
Durbin-Watson		1.409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간 관계 모형을 살펴본 결과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간접경험, 만남의 정도, 봉사 활동 정도, 사회적 거리감 그

리고 차별적 신념 변인이 사회적 통합에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 경험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앎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공적 기회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하며, 장애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하고,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 등에 대한 봉사활동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권장할 때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장애인 특히, 지적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고, 자립적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정도, 지적 장애인과의 활동 정도, 간접 경험과 만남의 정도 등에 따른 대학생들의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사회적 거리감, 개인적 권한 및 차별적 신념에 대한 설명 변인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련 변인간의 관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결론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연구도구의 타당도는 4개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이 .30이하의 것은 삭제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전체 문항 수준에서 .90이상의 매우 신뢰로운 도구였다.

둘째,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는 여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1학년이 4학년보다 긍정적이고, 특수교육관련학과에 재학생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은 학년, 만남정도, 봉사활동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 학년, 전공, 만남정도, 활동 경험에 의해, 개인적 권리는 성별, 만남정도, 봉사활동에 의해, 그리고 차별적 신념은 성별, 학년, 만남, 봉사활동 변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간 관계 모형은 아래와 같은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전체 설명량은 $R^2=.574$ 로 나타났다.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 $2.229 +$ 간접경험 $\times .351 +$ 만남정도 $\times .112 +$ 봉사활동

.437 + 사회적 거리감.419 + 차별적 신념*.457

따라서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은 개인적 변인 중 간접 경험의 정도와 봉사활동 정도에 의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과 차별적 신념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도 매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과 차별적 신념을 가진 개인들의 특성은 변화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은 변인들이지만 간접 경험의 정도 그리고 봉사활동의 정도는 어느 정도 사회 환경의 구성에 따라 또는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접 경험의 정도는 지적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과의 활동에 관련된 많은 비장애인의 노력에 의해 일반 사회인들에게 직·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변인으로 특수교육 정책 및 관련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Horner-Johnson et al(200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그 문화에 적절한 도구를 개발하여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 지위, 직업, 연구 또는 관심 분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적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병서, 김계수(2006). 한글 SPSS 12K 사회과학 통계 분석. 서울 : SPSS 아카데미.
- 김지은(2003). 비장애 청소년의 지적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 한나래.
- 김진영, 남진열(2005).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인식과 태도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2권 4호**, pp 39-58.
- 박은경(2005).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병화(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원석, 최성규, 이한선(2007). 통합교육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간 관계 연구. **특수 아동교육연구 제9권 4호**, pp. 41-64.
- 이영철, 이유훈(2000). 정신지체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태도. **발달장애학회지 제4집**. pp. 161-171.

- 정선영, 공마리아(2004). 통합교육 환경 하의 대학생들 간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 비교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0권 1호, pp. 199-231.
- 한영숙(2004). 장애인 편견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대구대학교 학생 생활 상담 센터 : *학생 생활 연구*, 11, 55-72.
- Acton, H. M. & Zarbatany, L.(1988). Interaction and performance within cooperative groups: Effects on nonhandicapped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ir mildly mentally retarded pee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5, 16-23.
- Antonak, R. F., & Harth, R.(1994). Psychometric analysis and revision of the mental retardation attitude inventory. *Mental Retardation*, 32(4), 272-280.
- Antonak, R. F., & Livneh, H.(1991). *Survey research on attitudes*. In J. L. Matson & J.A.Mulick(Eds.), *Handbook of mental retardation*(2nd ed., pp. 552-568). New York : Pergamon Press.
- Berry, J., & Dalal, A.(1996). *Disability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ur: Report on an international project in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Report submitted to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Advancement of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 Brown, R., Vivian, J. and Hewstone, M. (1999). Changing attitudes through intergroup contact: the effects of group membership sali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741-764.
- Donaldson, R. M., Helmstetter, E., Donaldson, J., & West, R.(1994). Influencing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and interactions with peers with disabilities, *Social Education*, 58(4), 233-237.
- Finch, J.(1998). Attitude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The effect of contact in a summer camp program.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 Social Sciences*, 59(6-A0, 1976.
- Fisher, D., Pumpian, I., & Sax, C.(1998).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about and recommendations for their peer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3(3), 272-282.
- Gottlieb, J., Corman, L., & Curci, R.(1984). *Attitudes toward mentally retarded children*. In R. L. Jones(Ed.),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in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Groce, N. & Zola, I.(1993). Multiculturalism,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Pediatrics*, 91(1-2), 1048-1055.
- Groce, N.(1997).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developing world.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8(1-2), 177-193.
- Harth, R.(1977). *Attitudes and mental retardation: Review of the literature*. In C. J. Drew, M.L. Hardman, & H. P. Bluhm(Eds.), *Mental retardation: Soci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St. Louis: Mosby.
- Hornby, G.(1992). Integration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 Is there time for a policy review? *Support for Learning*, 7, 130-134.
- Horner-Johnson, W., Keys, C., Henry, D., Yamaki, K., Oi, F., Watanabe, K., Shimada, H., & Fugjimura, I.(2002). Attitudes of Japanese students towar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6, 365-378.
- Kowalski, E. & Rizzo, T.(1996). Factors influencing preservice student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3(2), 180-196.
- Lewis, A. & Lewis, V.(1987). The attitudes of young children towards peers with severe learn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5, 287-292.
- Likert, R.(1932).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No.

140.

- Makas, E., Finnerty-Fried, P., Sugafoos, A., & Reiss, D.(1988). The Issues in Disability Scale : A new cognitive and affective measure of attitude toward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Behavioural Counselling*, 19, 21-29.
- Sherif, M. and Hovland, C. I. (1961). *Social judgement: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iperstein, G. N., Parker, R. C., Bardon, J. N., & Widaman, K. F.(2007). A National study of youth attitudes toward the inclusion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73, 1-20.
- Tregaskis, C.(2000). Interviewing non-disabled people about their disability related attitudes : Seeking methodologies. *Disability & Society*, 15, 343-353.
- Triandis, H.C.(1971). *Attitudes and attitudes change*. New York:Wiley.
- Zhang, C & Bennett, T.(2001). Multicultural views of disability :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professionals. *Infant-Toddler Intervention*, 11(2), 143-154.

A Study on the Rel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 Social Integration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Oh, Won Seok

Daegu InJi-elementary school

Choi, Sung Kyu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Song, Hyea Gyeong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Shin, Ji Hyeon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253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social integration, social distance, private rights, and subtle derogatory beliefs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and developing a relational model of variables related to their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genera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instrument was proved.

Second, female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In addition, first year students and students majoring in special education related subjects displayed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senior students and students whose majors were not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 social integration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can be explained by what school year they are in, their meetings with the disabled, and degree of their participation in voluntary activities. The social distance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can be explained by what school year students belong in, their gender, majors, meetings with disabled people, and their activity experiences. In addition,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s private rights can be explained by students' gender, meetings with the disabled, and their

voluntary activities. Furthermore, subtle derogatory beliefs towards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can be explained by what school year students are in, their gender, meetings with the disabled, and voluntary activities.

Third among personal variables, the degrees of students' indirect experiences and voluntary activities was found to be the best predictors of the relational model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 social integration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The relation also displayed significant changes with regard to the social distance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and subtle derogatory beliefs about them. The entire amount of explanation was $R^2=.574$.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attitudes, social integration.